



조경수목산책 30

- 무궁화 -



임 경 빈
농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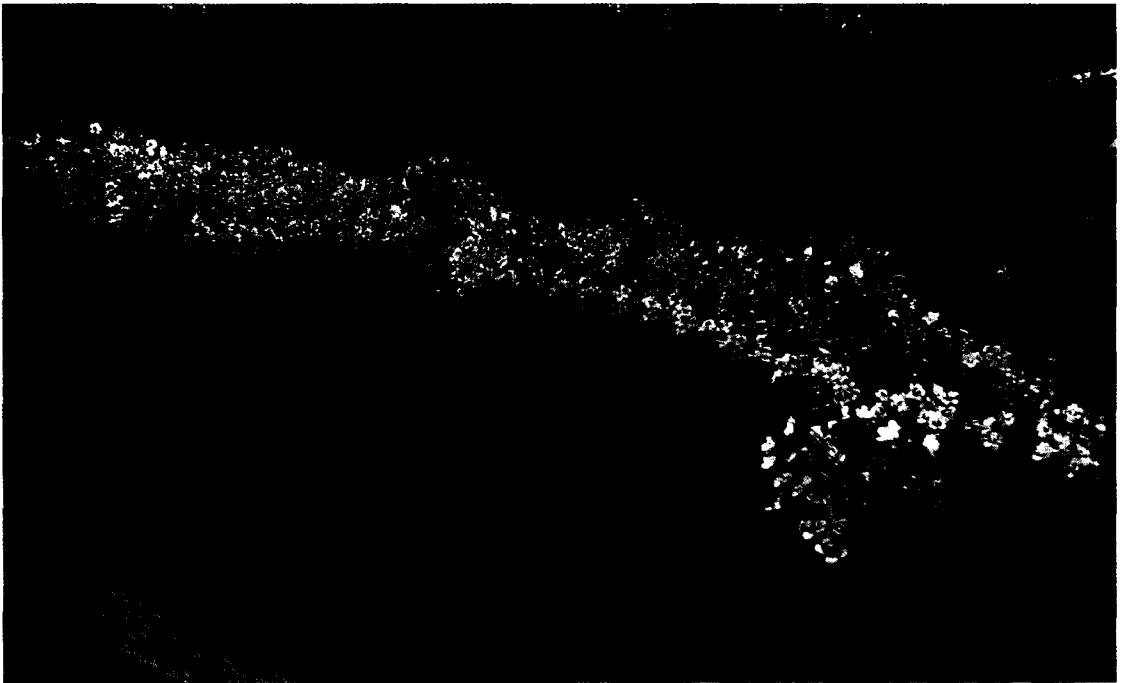
1. 우리의 꽃 무궁화

우리나라꽃 무궁화. 애국가에 등장하고 있는 꽃나무. 우리 국민은 무궁화를 무척 좋아하고 어느 면으로는 존중하는 경지

에까지 이르고 있다. 필자는 외국의 국가를 알아 본적이 없어서 그 내용의 대충도 모르고 있으나 우리는 애국가 제창이라 말하지 국가제창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 반면 외국에 있어서는 그들이 국가(national anthem) 제창이라 말하지, 우리처럼 나라사랑을 강조하는 애국이란 형용사는 앞에 붙이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나라사랑을 강조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애국가에 무궁화를 등장시키고 있으니 무궁화가 국민 심성에 파고 들고 있는 농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본국가에는 그들의 국화 벚나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모르기는 하지만 중국의 나무인 매화나무, 이스라엘의 올리브나무, 캐나다의 사탕단풍나무, 레바논의 시이더나무, 잉글랜드의 장미가 그들의 국가를 장식하고 있는지 궁금하



▲한반도를 덮은 무궁화. 무궁화 대전치때 1996. 8. 12

다.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이처럼 좋아하고 있다.

2. 무궁화는 꽃나무

무궁화나무는 꽃나무다. 꽃을 문채삼지 않는다면 무궁화의 가치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다. 카나다는 국기에 그들의 나라나무 사탕단풍나무의 붉은 단풍잎을 넣고 있다. 사탕단풍의 단풍잎은 카나다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지상의 예술품이고, 카나다 국민의 아름다운 심성을 대변해주는 상징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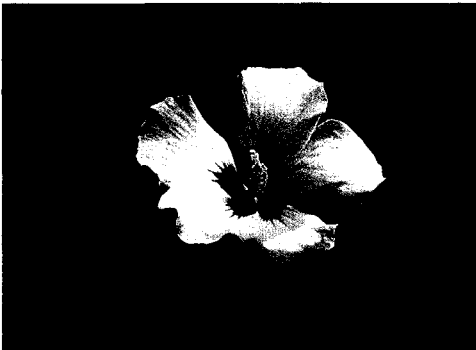
우리 무궁화의 가치의 대부분이 꽃에 있다면, 카나다의 자랑은 사탕단풍나무의 홍엽에 있다. 사탕단풍나무에서는 슈

가메이풀이라는 수액이 나와 그 경제적 가치가 대단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단풍에 무게를 두는 것은 정신적 평가를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다. 우리도 무궁화의 쓰임새를 말할 때 생울타리 조성용이니, 약용이니, 섬유의 이용가치 등등 말하지만 뛰어난 가치는 꽃에 있다. 그래서 나무이름도 꽃을 돋보이게하는 무궁화(無窮花)로 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더 있다. 가령 병꽃나무, 병아리꽃나무, 매화나무, 죽도화 등 꽃에 초점을 맞춘 나무이름들이 있고, 그들 꽃은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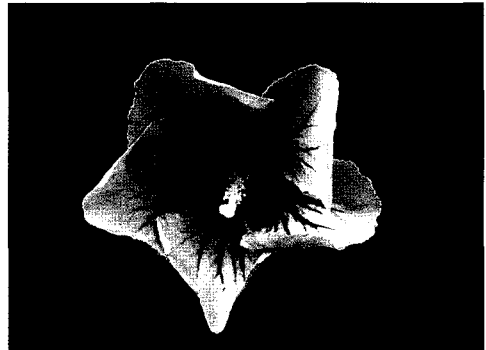
이 가운데 무궁화는 특유한 미(美)를 갖추고 있다. 쨍쨍 쫄

이는 햇볕아래 한여름의 작열(灼熱)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작작(灼灼) 피어나는 무궁화는 별다른 생리를 몸 안에 감추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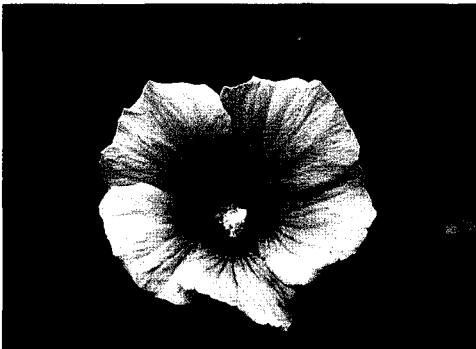
무궁화의 꽃은 그러나 해뜨기전 새벽과 낮의 사이쯤에 관상하는 것이 좋다. 새벽의 찬기운이 흘러가지 않고 잔잔하게 공간에 가라앉아 있을 때 몇 송이씩 입을 열고 나서는 꽃들을 한가로이 바라보는 것이 격에 어울린다. 부드러운 서도 냉철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이 제절로 이는 모시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 바라보는 것이 좋다. 방금 다리미질이 끝나 풀 기운이 살아있는 삼배바지 저고리를 입고 뜰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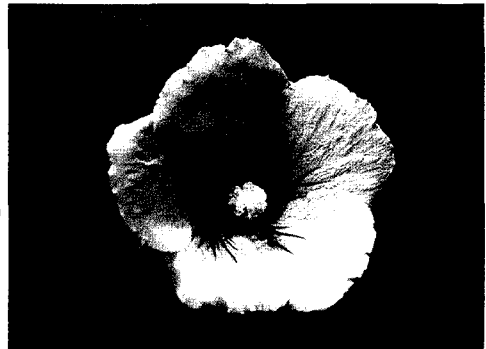
◀백단심.
1993. 8.



▶칠보.
1993. 8. 10



◀재래종에서.
1993. 8. 10



▶화홍.
1993. 8. 10



◀꽃피.
1993. 8. 19



▶개량단심.
1993. 8. 10

에 서 있는 무궁화의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좋다. 마당은 빗질이 되어 있어서 깨끗하고 아직 아침해는 동쪽 산마루에 가려져 있다. 이맘때면 맑고 칼칼한 공기가 지붕 위를 덮어 퍼져나가고 있는 박 줄기도 생기를 간직하고 있다. 밤중의 박꽃, 새벽의 무궁화 꽃은 우리민족의 생활환경을 수 놓은 그림으로 말할 수도 있다.

유연(悠然)이 남산(南山)을 바라 본다는 도연명의 시구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단심(丹心) 흰 꽃의 무궁화를 새벽공기 속에서 바라보고 사랑해 보는 것이다. 무궁화는 빠른 아침때 힘찬 생기에 충만하게 된다. 생기에 넘칠 때 그 아름다움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피둥피둥한 힘 그것이 곧 아름다움일 수도 있다. 산해경(山海經)에 보면 무궁화는 조생모사(朝生暮死)라고 했다. 아침에는 살아있다가 저녁이면 시든다는 뜻이다. 조개모락(調開暮落)이란 표현도 있다. 아침에 피고 저녁에는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런 가하면, 근화일조몽(槿花一朝夢)이란 말도 있다. 무궁화, 아침 한때의 꿈이란 뜻이다. 아침은 하룻날의 시작이다. 시작을 영광스럽게 하는 꽃이 무궁화이다. 그렇다고 해서 낮에 이 꽃이 시드는 것도 아니다. 햇별이란 광휘(光輝)와 함께 삶의 생리를 동반하는 무궁화는 무언가 철학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다. 그 뜨거운 열기를 무색하게 만들고 마는 까닭이다.

무궁화는 고요하고 말수가 거의 없는 꽃이고 보면 잡다한 시정의 요란스러움은 영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왕유(王維)의 시에 산중습정관조근(山中習靜觀朝槿)이란 대목이 있다. 조용하고 울창한 숲속에서 도를 찾으려 하면서 조용히 무궁화꽃을 바라본다는 내용이다. 이 얼마나 서로 어울리는 상황이 아닌가. 장미꽃을 복숭아꽃을 개나리꽃을 바라보면서 도를 닦는다는 상황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무궁화의 값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3. 무궁화 꽃의 항상성(恒常性)

무궁화의 꽃은 피고, 지고, 지고, 피고하면서 개화(開花)의 항상성(恒常性)같은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무궁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꽃이 다시 나타나서 어제의 떨어짐을 잊게 해준다. 다음의 시가 떠오른다.

林花掃更落 임화소갱락
經草踏還生 경초답환생

떨어진 나무꽃은 쓸어도 다시 떨어져 그곳을 덮고 길옆의 풀은 밟아도 밟아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다. 즐기찬 생명의 끈나풀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나는 전에 톨스토이의 인생독본이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첫머리쯤 되는 곳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봄풀을 죽이기 위해서 기를 을 붓고 불을 질러 보았지만, 그곳에는 역시 다시 풀썩이 돋



◀각찰.
1993. 8. 10



▶독남
1993. 8. 10

아 나더라」하는 것이었다. 모진
생명의 재생력을 말하는 것이
고, 힘만으로는 하늘이 내려준
생명을 없앨수는 없다는 뜻이
다. 이것은 민초(民草)의 끈질
긴 생명력을 암시하는 것으로
도 짐작된다.

4. 꽃잎의 방랑성(放浪性)

꽃은 나무 종류에 따라 다른
생명을 가진 것이 있다. 우선
방랑성이 있는 꽃과 그렇지 않
은 꽃이 있다. 꽃은 종류를 막
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도깨
비의 딸도 시집갈 무렵이면 아
름답게 보인다는데, 하물며 나
무들의 꽃을 도깨비의 딸에 견
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런데 살구꽃, 벚꽃 등은 꽃
이 질때 꽃잎이 이집, 저집, 뜰
로, 방안으로 찾아든다. 포플러
나 사시나무나 버드나무의 열
매는 꽃도 못되면서 동네방네
찾아다닌다. 말하자면 방랑성
의 꽃들이다. 떨어지는 꽃잎이
비오듯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것이 방랑성을 뜻한다.

다음 시가 있다.

洛陽城東桃李花 낙양성동도이화
飛來飛去落誰家 비래비거락수가

낙양성 동쪽에 서 있는 복숭
아꽃, 오얏나무꽃은 떨어져서
바람타고 날으면서 누구네 집
으로 가는 것일까 하는 내용이
다. 일종의 바람기있는 꽃잎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아름다움
의 광역살포(廣域撒布)로써 한
목 보자는 말이다.

또 시에 꽃잎 떨어져 나무
옷자락에 가득하도다 하는 것
이 있다. 한사람의 옷이 아니
다. 이사람 저사람의 옷에 안겨
간다면 그 지조에는 문제가 있
다. 방랑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랑성을 크게 미화(美化)한
시도 있다.

花舞大唐春 화무대당춘
願得長如此 원득장여차

꽃잎이 떨어져서 대당제국
(大唐帝國)에서 춤을 추고 있
다. 이러한 아름다운 경치(영
광)가 오래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노라 하는 시구이다. 꽃

은 영광의 절정을 뜻한다.

5. 꽃에 붙여 보는 인간들의 애환

그러나 대체로 영광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거
의 반드시 종말이 있다. 영광이
높은 언덕 위에 있을 때에는
내리막길이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다.

다음의 시는 이러한 면을 읊
고 있다.

坐見花落長歎息 좌견화락장탄식
今年花落顏色改 금년화락안색개
明年花開復誰在 명년화개부수재

어쨌든 꽃 떨어짐을 보고 깊
게 탄식하노라.

올해의 꽃잎지자 낮은 더 높
어가고 내년 꽃필때 살아 남을
사람 누구인가.

이것은 꽃을 영광의 반대편
에서 조명하여 내다 본 것이다.
어느 각도로 보나 그것은 상관
이 없다. 나름대로이다.

또하나, 더 들어 본다.



◀원화.
1993. 8. 10



▶선덕.
1998. 8. 10

白髮悲花落 백발비화락
靑雲羨鳥飛 청운선조비

흰머리털을 머리에 얹고 떨어지는 꽃을 보니 슬픈 생각이 더 해온다. 푸른구름(영광 또는 사회적영달)을 나는 새를 보니 부럽기 짝이 없다. 늙음은 일종의 추락을 뜻함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도 인간일 지라 늙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낙화에 얽힌 희망 또는 새로운 발돋움 같은 자극을 고취한 것도 있다. 당(唐)나라 때의 이(李)의 시 가운데 무궁화를 등장시키고 있다. 군데 군데를 뽑아 본다.

莫言貧賤長可歎 막언빈천장가탄
莫言富貴長可託 막언부귀장가탁
木槿朝看暮換落 목근조간모환락
不見古時塞上翁 부견고시새상옹

말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은 끝내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재산과 지위가 오래 계속되리라고, 무궁화의 꽃은 아침에 피

어 저녁에는 떨어지는 것을 옛적 만리장성 부근에 살고 있었던 새옹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는가. 씩어 볼만한 내용이다.

6. 도연명의 무궁화 시

도연명(365~427)의 무궁화시가 있다. 도연명은 귀거래사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집 뜰에 52주의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어 오류(五柳) 선생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나이 서른이 되기까지는 농사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고, 서른에서 마흔 살까지 10년간은 벼슬을 하다가 은퇴하면서 가장 착잡한 인생을 경험한 때였다. 그는 다섯번 관직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불행한 삶을 되풀이했다. 마흔살부터 죽을 때까지 약 23년간은 은둔 생활을 하면서 시인으로써 유유자적하며 살아갔다. 그는 유명한 귀거래사를 56세때 지었고, 그때 은퇴한 뒤 15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때였다.

도연명은 영목(榮木)이란 제

목으로 시를 읊었는데 영목은 무궁화로 번역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무궁화를 영목으로 호칭하는 일은 거의 없다. 사전에서 영(榮)자의 풀이는 다양하게 되어 있다.

첫째로 영자는 꽃을 뜻하고, 특히, 초본(草本·풀)의 꽃을 뜻한다고 했다. 무궁화 나무는 물론 풀따위는 아니다. 이아(爾雅)라는 책에 보면 나무의 꽃은 화(華)로 말하고 풀 따위의 꽃은 영(榮)으로 말한다고 했으나 또다른 책에는 목근영(木根榮)이라고도 있어 무궁화의 꽃도 영(榮)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연명도 귀거래사에 목흠흠이향영(木欣欣以向榮)이라 있어서 나무의 꽃도 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설문(說文)에 보면 오동나무도 영(榮)으로 나타낸다고 했으나, 무궁화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성을 띄우고 있다.

도연명의 무궁화의 시는 32 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모조리 여기에 감상할 수 없다. 그리고 한문자로 된 원문을 생략



◀금산사의 무궁화.
1988. 10. 12



▶한모람(겉꽃)
1993. 8. 10

하고 우리말로 옮긴 것을 이곳에 보인다.

무성하게 자란 무궁화
땅에 굳건히 뿌리를 박고
아침에는 화려한 꽃
저녁이면 시들어 가는구나
잠시 이 세상 지나가는 인생
쉽게 늙고 시들어 가니
생각할수록 가슴 아프다.
무성한 무궁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아침에는 영광의 꽃
시들어간 저녁
세상사 하기에 달려있으니
오른 길 따라가고
착한 일 하기에 힘쓰라

이처럼 도연명은 무궁화를 부귀영화의 성취에 결부시켜 인생의 교훈 비슷한 것을 찾아 보고 있다.

7. 실상사의 문비(門扉) 무궁화

불교 조계종 실상사(實相寺)는 전북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에 있다. 실상사가 처음 창건된 것은 신라 제42대 흥덕왕 3년

(828)이라고 한다. 실상사에 약사전(藥師殿)이라는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의 문짝 조각이 유명하다. 대체로 우리 나라 사찰의 대웅전을 비롯해서 부속 건물의 문짝의 목공예(木工藝) 예술은 뛰어난 것으로 국보급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것도 있다. 나무종류의 선택이며 그 기하학적 구도이며, 신기(神技)에 이른 칼질이며, 놀랄만한 예술작품이 많다. 필자가 실상사를 1993년 7월에 찾았을 때 그곳 스님이 실상사의 유래와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중 특기할만한 것은 약사전의 문짝 조각인데, 이 문짝은 약 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스님의 신념에 찬설명에 의하면 이 꽃 모양은 무궁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꽃 잎 조각이 6장으로 되어 있어 5장의 무궁화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각은 사실을 예술적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무궁화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믿기

로 했다. 이러한 설화(說話)는 따지지 말고 그대로 믿어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300년 전에 이미 무궁화가 우리 나라의 나라꽃으로 된 것이라고 신통(神通)한 예지(豫知)에서 이루어 졌다는데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았다. 나는 무궁화보다는 치자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고, 아니면 추상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았다. 실상사의 장엄(莊嚴)을 또 신비성을 더해주기 위해서는 무궁화로 받아드리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1999년 8월 14일(금)자의 조선일보에 실상사의 꽃 문짝 사진이 천연색으로 제공되었고, 설명을 보면 문짝의 꽃들은 무궁화라고 했다.

나는 이 문짝의 아름다운 기예적(技藝的) 조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궁화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으면 했으나 구전(口傳)도 가볍게 취급할 수 없을 것이다. **조경수**

(다음호에 계속)